



선순환에 들어선 해외펀드

1. 해외펀드 중 재간접펀드 빠르게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투자에서 손실이 난 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주식펀드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줄였음
- 2015년 이후 은퇴자산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부각이 된 TDF가 늘어나면서, 해외재간접펀드는 빠른 속도로 증가
-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늘리면서, 해외주식일임 꾸준히 증가

2. 해외주식펀드는 글로벌, 북미, 정보기술 등에 투자

-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주식펀드 투자는 중국 유형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
- 현재 해외주식펀드는 중국, 글로벌, 북미 순서로 투자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선호 증가
- 섹터펀드에 대한 선호도 과거보다 증가

3. 선진국 펀드 선호 증가

-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 1조원을 넘어서는 펀드는 3개이고, 9천억원을 넘어서는 펀드는 2개
- 대형 해외주식형펀드의 투자 범위는 정보기술, 북미, 에너지, 중국, 글로벌 등으로 과거보다 다양해짐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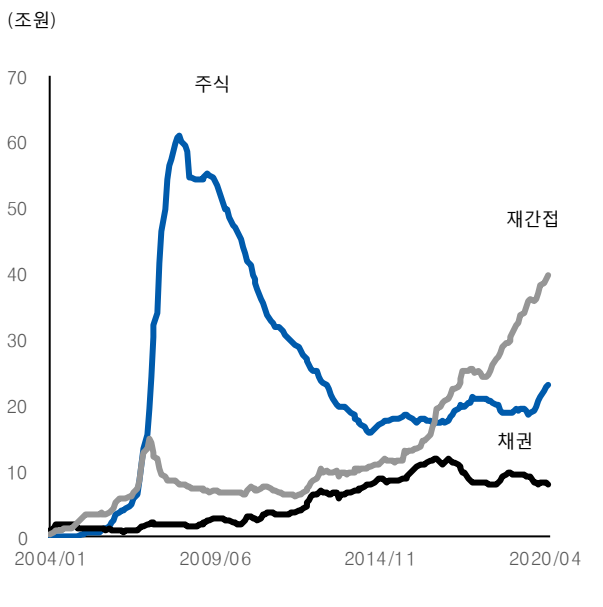
1. 해외펀드 중 재간접펀드 빠르게 증가

2007~2008년 이후 중국 등 신흥국 주식펀드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때는 해외주식펀드의 설정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투자에서 손실이 난 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주식펀드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줄여왔다.

2015년 이후 은퇴자산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부각이 된 TDF가 늘어나면서, 해외재간접펀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해외주식펀드는 2017년 이후 18~21조원 규모를 유지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해외주식펀드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2020년 10월 이후로 해외주식펀드로 월간 4.4조원이 순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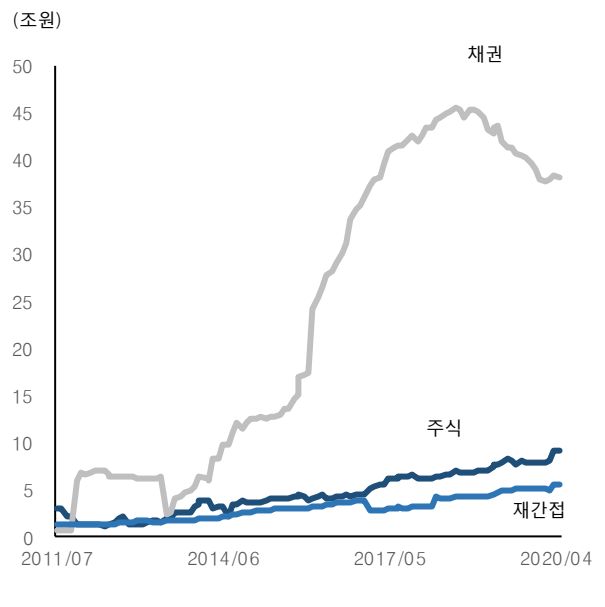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큰 해외일임은 2014년 이후 채권유형으로 투자 자금이 크게 늘어나, 2018년에는 해외채권일임이 45조원까지 늘어났다. 4월 해외일임 계약규모는 채권 38조원, 주식 9조원, 혼합 6조원 등으로 투자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도 늘리면서, 해외주식일임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차트1] 해외펀드에서는 주식형과 재간접형의 규모 증가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해외일임에서는 채권형 감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해외주식펀드는 글로벌, 북미, 정보기술 등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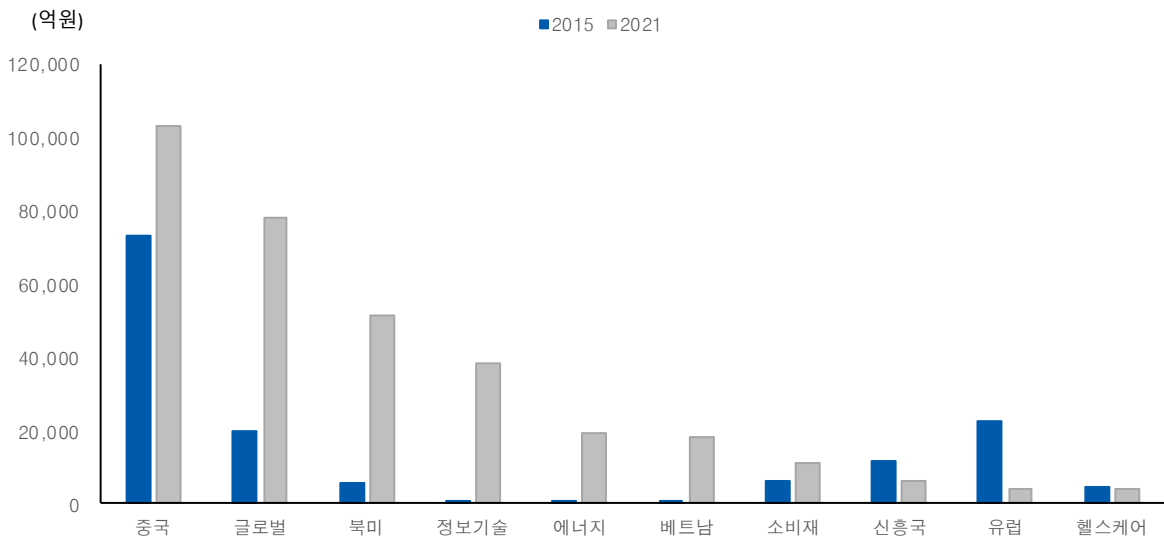
과거에는 해외주식형 중에서는 중국 유형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2015년 이후 선진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주식 유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 해외주식펀드 투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언택트와 정보기술에 대한 선호는 북미펀드와 정보기술펀드, 글로벌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현재 해외주식펀드는 중국, 글로벌, 북미 순서로 투자되고 있으며, 신흥국과 유럽 투자 비중은 5년 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신흥국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5년 만에 바뀐 것이다.

섹터펀드에 대한 선호도 5년 전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업종간·국가간 성과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성과 격차는 테마펀드나 섹터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를 불러왔고,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었다.

[차트2]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는 글로벌펀드, 북미펀드, 정보기술, 에너지 등이 투자 크게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선진국 펀드 선호 증가

국내액티브주식펀드 중에서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서는 펀드는 ‘신영밸류고배당’이 유일하다.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는 1조원을 넘어서는 펀드가 3개이고, 9천억원을 넘어서는 펀드도 2개나 된다.

대형 해외주식형펀드의 투자 범위는 정보기술, 북미, 에너지, 중국, 글로벌 등으로 과거보다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BRICs 와 베트남 등 신흥국주식을 중심으로 투자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가 다양화되고 있다.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 등은 선진국 투자 비중이 높으며, 미국 주식펀드는 ‘AB그로스’,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 ‘삼성KODEX 미국FANG 플러스’ 등이 해당된다.

해외 주식펀드의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는 ETF다. 해외주식펀드 상위 펀드 15개 중 ET가 3개를 차지한다. 해외주식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해외주식ETF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경험이 해외주식 간접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겼다. 투자 자산의 다양화는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펀드명	평가유형	순자산	설정일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정보기술	27,558	2015-06-17	71.1	108.7	224.0
AB 미국그로스	북미	14,835	2010-03-30	41.5	75.6	137.5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	에너지	12,608	2017-10-26	105.7	68.8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	중국	9,578	2014-11-10	63.7	84.1	222.7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글로벌	9,331	2013-02-20	23.7	36.1	49.0
KB 중국본토 A 주	중국	8,866	2011-03-23	63.6	60.9	121.5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	글로벌	8,284	2008-07-08	47.8	72.5	144.3
미래에셋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중국	8,136	2020-12-03			
피델리티아시아	아태(ex J)	7,490	2007-05-18	52.6	65.1	129.7
미래에셋 TIGER 나스닥100	북미	7,216	2010-10-18	43.9	114.6	203.4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베트남	7,052	2016-02-17	64.3	9.7	90.7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글로벌	6,097	2007-05-28	51.1	59.3	108.0
미래에셋 G2이노베이터	글로벌	5,603	2016-12-01	81.0	79.3	
삼성 KODEX 미국 FANG 플러스	멀티/기타	5,393	2019-01-08	96.6		
KB 통중국4차산업	중국	4,671	2018-05-18	58.4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22일 영업일 기준